

지역감정은 존재하는가?: 지역감정에 대한 간접측정 기법을 중심으로

최준영 | 인하대학교

| 논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감정에 대한 간접측정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들 간에 지역감정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지역감정에 대한 간접측정 기법은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인종차별주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을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호남인과 영남인들 사이에 지역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감정에 기반한 많은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지역주의의 내재적 성격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주의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 서론

한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역주의¹⁾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는 비록 그 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한국의 모든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지역주의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많은 정치학자들의 관심을 유발시켰으며, 따라서 지역주의의 등장과 존속 또는 변화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비판이론(최장집 1991, 1993; 황태연 1997), 정치동원이론 또는 선거균열이론(김만홍 1994; 문용직 1991; 손호철 1997; 최준영 2007b; 최준영·조진만 2005), 합리적 선택이론(문우진 2005; 박상훈 2001; 조기숙 1996) 등 다양한 이론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강원택 2003; 이갑윤 1998; 이남영 1998; 최영진 1999).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 정치학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 경향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역인들의 심리적 상태에 연계된 지역감정²⁾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이론적 논리체계는 암묵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지역감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지역감정의 중요성이 정치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지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감정 자체에 대한 정치학계의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이 지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의 논리구조를 완결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비판이론을 주요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부터 살펴보자.

-
- 1) 지역주의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의를 선거에서 고향출신 정치인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지역감정은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여타 지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종의 집단적대감을 의미한다(김진국 1989).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에서 지역주의의 등장과 존속의 주된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영남지역 출신의 정치엘리트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배제한 채 영남위주의 경제발전을 주도하였고 정치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도 영남 출신을 집중적으로 충원하여 영남과 호남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역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이러한 지역적 격차가 자동적으로 지역주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지역적 격차는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지역주의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호남과 영남의 지역감정에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적인 차별을 받았던 호남에서 발생한 지역감정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 반면 영남에서 발생한 지역감정은 기득권 수호의식 또는 우월의식 등과 중첩된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최장집 1991).³⁾ 이 이론의 주된 초점은 분명 정치적·경제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불평등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이러한 구조가 지역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간 지역감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지역감정의 매개변수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정치동원이론 또는 선거균열이론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 속에는 사회 구성원을 가르는 다양한 균열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 특정 균열만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예를 들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 균열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Riker 1982; Schattschneider 1960). 즉 지역주의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1987년 이후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균열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을 동원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의 초점은 지역균열을 활성화시키는 정치인들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동기와 행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3) 비판이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분명 이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비평은 이갑윤(1998)과 최영진(1999)을 참조하시오.

맹점은 정치인들이 여러 균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지역균열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또 지역인들은 왜 이처럼 열렬하게 정치인들의 지역적 호소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주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이론은 지역인들을 정치인들의 지역주의적 호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유도하는 어떤 근원적인 동기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단지 암묵적으로 전제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인들의 이와 같은 동기구조는 다양한 내용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그러한 근원적 동기구조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역감정은 이러한 종류의 이론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합리성이 고향 출신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투표를 하게 만든다고 한다. 즉 지역인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심리를 배제한 채 개인의 도구적 합리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것이 지역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신에게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합리적 계산을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과연 지역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어 왔다. 강원택(2000)에 따르면 지역주의적 투표 결과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성격은 배제적이고 경합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역주의적 투표를 한다고 해도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지역주의적 투표를 한다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원칙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시도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우진(2005)은 강원택이 지역주의적 투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비판하며 합리적 선택이론의 유용성을 변호한다. 그에 따르면 지역주의의 혜택은 “정치인의 학력, 능력, 업적, 개인적 매력, 지역구 사업 성과” 등과 같은 가치쟁점(valence issues)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경우 지역인들은 “자신의 지역 정당이 승리할 경우 초래되는 자기 지역의 경제

적·정치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결국 자신의 효용을 상승시키리라는 기대감과 “타 지역 정당이 승리할 경우 타 지역에 국가적 자원이 더 많이 분배되는 것에 대한 (...) 부정적 우려감”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즉 지역인들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엄정한 손익계산을 통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 투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이 증가(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우려감)에 의존하여 투표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지극히 합리적인 투표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러한 기대감이나 부정적 우려감이 어디에서 파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문우진은 이것을 지역인들의 집단적 기억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유권자는 호남민은 단선인 호남선을 타고 영남민은 복선인 경부선을 탄다는 기억, 신흥 산업도시가 영남의 지도를 채워나가는 기억, 호남민이 호남인이어서 서울에서 취업할 수 없었던 기억, 그리고 군사정권하에서 권력자가 국가자원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기억, (...) 호남이 정권을 잡아 영남정계가 기울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억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특히 대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지역에 좋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 자신의 지역의 발전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최소한 부정적인 효용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이다 (175쪽).

이러한 집단적 기억의 성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편견적이고 따라서 지역감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감정은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합리적 지역인들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감정이 매개되지 않고는 지역주의의 합리성을 운위하기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은 경우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을 생략하고는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은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만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치학계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

어져 왔던 지역감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데 놓여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감정에 대한 간접측정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들 간에 지역감정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주로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지역감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고 그 한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쿠클린스키와 그 동료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간접측정 기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 기법이 지역감정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이 연구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도 논한다. 제4장에서는 지역감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경험적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경험적 결과가 지역주의 연구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함의를 논하도록 한다.

II. 사회심리적 개념으로서의 지역감정: 기존연구 분석

정치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감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지역감정을 주로 사회심리학적 개념들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타 집단에 대한 집단적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대감은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 세 가지 심리적 구성요소를 지닌다고 한다(김진국 1989; 김혜숙 1989; 안신호 1989). 김진국(1989)에 따르면 고정관념이란 “집단적대감의 인지적 요소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성격이나 행동양식에서의 특징”이며, 편견은 “집단적대감의 감정적 요소로 어떤 집단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차별은 “집단적대감의 행동적 요소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사람을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대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칭한다(224쪽). 결국 지역감정이란 좁게는 특정 지역인의 타 지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넓게는 이러한 심리상태가 차별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지역감정의 존재여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인의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호오도나 사회적 관계의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호오도 측정의 형태는 대부분 각 지역 응답자들에게 특성기술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같은 지역인이나 타 지역인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부연 설명하자면, “믿을 수 없다”와 같은 특성기술개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인이나 타 지역인을 묘사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내집단과 외집단의 호오도를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관계를 통해 지역감정을 측정하는 방식은 사회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을 나타내는 영역을 구분하여(예를 들어 가족관계, 친구관계, 근린관계, 직업관계 등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응답자로 하여금 각각의 영역별로 내집단이나 외집단의 거리감을 평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간채(1991)는 네 가지 영역별로 응답자에게 내집단과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지역별로 한 가지라도 관계 맺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하여 이를 통해 지역감정을 측정할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지역인들이 같은 지역출신을 다른 지역 출신들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과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인의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한국의 지역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남인과 호남인 사이의 지역감정의 존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는 민경환(1991)이 김진국(1989)과 김혜숙(1989)의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민경환은 이 표를 통해 “전라도 응답자들이 경상도 사람들을 가장 호감도가 낮게 평정하기는 하였으나 중간점 이하로(즉 비호의적으로) 평정하지는 않았으며,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도 경상도 응답자들보다는 오히려 서울이나 충청도 응답자들이 낮았다”고 분석하였다(177-178쪽).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민경환은 영남인과 호남인 간의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이갑윤(1988)도 이 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한국인이 같은 지역출신인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출신인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50쪽).

〈표 1〉 각 지역인 상호간의 호오(好惡)태도

		대상지역인							
		서울		충청		전라		경상	
		김진국	김혜숙	김진국	김혜숙	김진국	김혜숙	김진국	김혜숙
응답자 지역	서울	59.3	6.71	56.0	5.81	48.8	3.74	60.4	6.16
	충청	57.0	5.31	58.9	7.63	45.6	4.34	66.0	6.28
	전라	53.1	5.44	55.8	5.93	61.5	7.40	58.3	5.12
	경상	56.7	5.09	59.0	6.50	49.8	4.63	66.7	7.85
	평균	56.5	5.64	57.4	6.47	51.4	5.03	62.8	6.35
	외집단평균	55.6	5.28	56.9	6.08	48.1	4.24	61.6	5.85

노트: 외집단 평균은 대상지역과 동일한 지역의 응답자 점수를 제거한 후의 평균이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에게 대한 외집단의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충청·전라·경상 응답자들의 점수 평균이 된다.

출처: 민경환(1991, 177쪽)

한국의 지역주의가 영남과 호남의 대립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치열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영남과 호남에서 상대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난다면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데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역감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지역감정을 측정하는 기법의 문제에서 파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III. 연구디자인과 가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지역감정을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호오도나 친구, 사업,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의 거리감 등으로 측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정방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응답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형식으로 지역감정 소유여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방식을 통해 지역감정을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 효과(testing effects)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조사효과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남녀차별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문자가 응답자에게 남녀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남녀차별을 옹호하고 있는 응답자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즉 남녀차별은 나쁜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면 설문결과와는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편향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응답자들에게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경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987년 지역주의가 대두된 이후 지역주의는 한국에서 반드시 해소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망국병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인(영남인)에게 영남(호남)출신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나 “이기적이다”와 같은 특징기술개념에 영남인(호남인)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응답자의 진실한 대답을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주에서 자신의 응답을 조율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감정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설문방식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설문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의 지역감정 소유여부를 어떻게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인종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Kuklinski et al. 1997a; Kuklinski et al. 1997b; Gilens et al. 1998).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새로운 남부(the new South)”가 등장하고 있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새로운 남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남부는 노예제도의 본 고장으로서 1964년 인권법(the Civil Right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 흑인에 대한 광범위한 인종차별이 존재했던 곳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남부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인종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인종차별적인 남부백인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Firebaugh and Davis 1988; Tuch 1987). 연구자들은 이처럼 인종차별이 현저히 완화되어가고 있는 남부를 과거의 인종차별적 남부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남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쿠클린스키와 그 동료들이 새로운 남부의 등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던 주된 이유는 인종차별주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의 성격 때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흑인이 당신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쿠클린스키와 그 동료들은 이러한 성격의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조사효과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종차별주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진실된 견해를 숨기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남부라는 개념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적절치 못한 측정도구 때문에 발생한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질문방식을 탈피해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설문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들의 설문방식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은 응답자를 무작위 추출기법을 통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통제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항을 제시 하였다.

- ① 주유세를 인상하는 연방정부
- ② 백만 달러 계약을 맺는 프로 운동선수
- ③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대 기업

쿠클린스키와 그 동료들은 통제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에게 위의 세 가지 문항

중에서 응답자를 화나게 만드는 문항의 개수를 적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에는 위의 세 가지 문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을 하나 더 추가하여 총 네 가지의 문항 중에 응답자를 화나게 만드는 문항의 개수를 적으라고 요구하였다.

④ 당신의 옆집으로 이사 오는 흑인가족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자를 화나게 만드는 문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문항의 “개수”만을 답하게 함으로써 질문의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을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방식하에서 응답자는 설문자에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고 단지 개수만을 말하기 때문에 설문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진실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즉 조사효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대폭 감소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문항의 개수의 평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만약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④번 문항에 대해 화가 난다고 느낄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은 비슷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면 실험집단에서 ④번 문항에 화를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실험집단의 개수의 평균은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인종차별주의의 존재여부는 실험집단의 개수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보다 큰지 아니면 별 차이 없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 실험집단의 개수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새로운 남부의 등장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남부에는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⁴⁾ 이와 같은 결과는 규범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남부에서 아직 인종차별주의가 사

라지지 않았으며 남부정치는 흑인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키이의 주장이 아직도 적실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Key 1949; 최준영 2007a).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의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매우 편향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그릇된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둘째,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방법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감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설적인 설문방식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설문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감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간접측정 기법을 응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문이 구성되고 사용되었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신지역이 광주/전라 지역인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통제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항 중에 응답자를 화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의 개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 ① 세금을 올리는 정부
- ② 수십 억을 벌고 있는 프로 운동선수
- ③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벌

그리고 실험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네 번째 문항을 추가하여 응답자를 화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의 개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⁵⁾

- ④ 경상도 출신의 직장 상사

4) 쿠클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기존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도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새로운 남부”를 주장하는 일련의 연구결과처럼 인종차별주의가 현저히 떨어지게 나타났다.

5) 나간체(1991)는 사회적 관계의 거리감의 영역을 관계거리의 폭에 따라 가족, 친구, 사업의

광주/전라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⁶⁾ 통제집단은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와 똑 같은 문항에 대해 응답자를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의 개수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이 세 가지 문항 이외에 다음의 문항을 추가하여 응답자를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의 개수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전라도 출신의 직장 상사

만약 광주/전라 지역 출신인 응답자들 사이에서 영남인들에 대한 지역감정이 존재한다면 “경상도 출신의 직장 상사”라는 문항에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실험집단에서 대답한 개수의 평균이 통제집단에서 대답한 개수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역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집단 간 개수의 평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호남인들 사이에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전라도 출신의 직장 상사”라는 문항에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이며, 따라서 실험집단에서 대답한 개수의 평균이 통제집단에서 대답한 개수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호남인들이 호남인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두 집단 사이의 평균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업자, 이웃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번째 문항을 직장상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한 이유는 관계거리의 폭이 중간정도에 위치한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관계거리가 너무 짧은 가족 영역을 사용하여 지역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반대로 관계거리가 너무 먼 이웃 영역을 사용하여 지역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 6) 영남지역이 고향인 응답자들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경기, 강원 지역이 고향인 응답자들에 대해서도 “전라도 출신의 직장 상사”에 대한 의견만을 물어 보았다. 이는 과거의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호남인(영남, 충청, 강원, 경기, 서울)의 호남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진국 1989; 김혜숙 1989).

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는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직후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이다. 각 지역민들 사이에 타 지역인에 대한 지역감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 결과와 해석

각 지역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이 어떻게 나타났고 또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여부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호남인들에게서 영남인들에 대한 지역감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2>에 따르면 호남인들 사이에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평균의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는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비호남인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개수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그것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 하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실시되었던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결론 중 하나는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인의 지역감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약 20여 년이 경과한 지금 비호남인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적 편견이나 감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호남인을 영남, 서울경기, 충청, 강원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각 지역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개수의 평균의 차이는 미미하였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지역별로 타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지역인들이 더 이상 지역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게 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표 2〉 지역별 지역감정 존재여부

지역	통제집단	실험집단	t 점수
호남	2,046(108) ²	2,064(94)	-0.162(p=0.872)
비호남	1,876(492)	1,945(507)	-1.371(p=0.171)
영남	1,901(212)	1,911(214)	-0.130(p=0.896)
서울경기	1,843(159)	1,919(174)	-0.944(p=0.346)
충청	1,887(97)	2,022(93)	-1.111(p=0.268)
강원	1,833(24)	2,115(26)	-1.261(p=0.214)

노트1: 개수의 평균

노트2: N

이르다. 각 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특정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타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감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지역감정의 존재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감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이념,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았다. 이 중 먼저 이념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감정의 수준은 지역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보수적 이념을 지닌 지역인들은 중도나 진보적 이념을 지닌 지역인들보다 훨씬 폐쇄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폐쇄성이 타지역인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각 지역인들을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수의 평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따르면 이념은 지역인들의 지역감정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7) 한편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타지역인들과 동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감정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처럼 출생지역과 거주지역이 다른 응답자들이 많은 경우 이 연구의 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출신지역과 거주지역이 일치하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표 2〉와 똑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표 2〉의 결과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표 3〉 이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 지역감정 존재여부

지역	이념성향	통제집단	실험집단	t 점수
호남	진보	2,046(22) ²	2,095(21)	-0.219(p=0.828)
	중도	2,015(65)	2,125(56)	-0.767(p=0.445)
	보수	2,143(21)	1,824(17)	1.280(p=0.209)
비호남	진보	1,948(77)	1,902(92)	0.405(p=0.686)
	중도	1,851(262)	1,946(279)	-1.393(p=0.164)
	보수	1,882(153)	1,971(136)	-0.907(p=0.365)

노트1: 개수의 평균

노트2: N

결과는 호남인이건 비호남인이건 보수주의자라고 특히 더 지역적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진보주의자라고 지역적 편견이 더 적은 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합리적인 지역감정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4〉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남인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으나, 두 집단 간 개수의 평균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한 경우도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비호남인들의 경우도 교육수준별로 지역감정 수준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5〉는 지역인들의 소득수준을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세 범주로 나누어 지역감정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호남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역감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호남인의 경우 적어도 중간소득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개수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개수의 평균보다 약 0.2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물론 이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발견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표 4〉 교육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지역감정 존재여부

지역	교육수준	통제집단	실험집단	t 점수
호남	중졸 이하	2,091 ¹ (11) ²	2,546(11)	-1,135(p=0,270)
	고졸	2,098(41)	2,148(27)	-0,265(p=0,791)
	대졸 이상	1,982(55)	1,929(56)	0,389(p=0,698)
비호남	중졸 이하	2,052(58)	1,859(85)	1,174(p=0,242)
	고졸	1,911(135)	2,057(124)	-1,439(p=0,151)
	대졸 이상	1,829(298)	1,925(294)	-1,604(0,109)

노트1: 개수의 평균

노트2: N

〈표 5〉 소득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지역감정 존재여부

지역	소득수준	통제집단	실험집단	t 점수
호남	저소득	2,097 ¹ (31) ²	2,053(38)	0,234(p=0,815)
	중간소득	2,041(49)	2,114(35)	-0,456(p=0,650)
	고소득	1,957(23)	2,000(19)	-0,159(p=0,874)
비호남	저소득	2,019(153)	1,947(147)	0,726(p=0,469)
	중간소득	1,822(197)	2,010(199)	-2,566(p=0,011)
	고소득	1,796(142)	1,863(161)	-0,763(p=0,446)

노트1: 개수의 평균

노트2: N

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잠정적인 추론은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안정과 절망의 경계인 중간층에 놓여 있는 비호남인들은 경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10년에 걸쳐 호남지역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인들이 부당하게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여 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문제에 있어서 비호남인들은 호남인들을 주요한 경쟁상대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을 유발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표 2〉에서 〈표 5〉에 걸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타 지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감정인 지역감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한 가

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경상도(전라도) 출신의 직장상사”라는 문항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내용을 담고 있고 따라서 이 연구디자인하에서는 지역감정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상도(전라도) 출신의 사위나 며느리”라는 내용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면, 즉 사회적 관계의 거리의 폭이 보다 짧은 영역에 속한 내용을 문항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연구에서 지역감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론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감정의 성격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개인적 관계보다 직장상사와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명하는 것이 보다 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역감정이 존재할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감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조사효과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간접측정 기법으로 지역인들 사이에 지역감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지역인들 사이에 지역감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역감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인)에 대한 심리적 편견 상태인 지역감정을 논외로 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갑윤(2002)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갑윤은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균열은 지역인들이 지니는 정치적 정향이나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순수한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즉 “선거에서의 정당경쟁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정부를 담당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174쪽). 결국 호남인은 호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영남인은 영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기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지역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갑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왜 호남인은 호남정권이 등장하기를 원하고 영남인은 영남정권이 등장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인 간 지역감정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문우진(2005)의 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우진은 자신의 출신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승리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상대 지역 정당이 승리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주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대감이나 우려감은 문우진이 지적한 바대로 차별과 편견이 뒤엉킨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집단적 기억은 그것이 생성되고 있던 시점에는 분명 지역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러한 집단적 기억이 더 이상 지역감정과 연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만 하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호남이 집권에 성공하였다는 사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차별받아왔던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에 성공하였다. 10년에 걸친 호남의 집권은 각 지역인들의 심리에 많은 변화를 유발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인들은 과거의 차별에 의해 형성되었던 피해의식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고 반면 영남인들은 연속으로 집권에 실패하였던 경험을 통해 다른 지역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피해의식과 우월의식이라는 상대 지역에 대한 편견이라는 불씨를 지속적으로 태우게 만드는 연료가 이제는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자동적으로 지역감정으로 전이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대신 오늘날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

억은 누가 정권을 잡는 것이 자신한테 높은 효용을 안겨줄 것인가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인식론적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며 어떠한 프레임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선택결정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Tversky and Kahneman 1981). 지역적으로 차별하고 차별 받았던 과거의 기억은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득과 손실을 계산할 때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보다는 후보나 정당이 대변하는 지역이 어디인가가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비합리적인 것이라 간주할 수는 없다. 지역주의적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분명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⁸⁾

지역감정은 더 이상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없다. 이제는 지역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혜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대감 또는 타 지역정당이 승리함으로써 그러한 혜택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주된 인식론적 프레임으로 삼고 있는 지역인들의 합리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타진해 보아야 할 때라 판단된다.

8) 이렇게 볼 때,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역주의적 프레임을 탈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문우진 2005; 박상훈 2001; 이갑윤 1998). 실제로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열린우리당은 이념과 세대의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힘을 약화시킨 바 있다(최준영·조진만 2005; 최준영 2007b).

[참고문헌]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pp. 51-67.
- _____.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pp. 215-237.
- 김진국. 1989.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화사.
- 김혜숙. 1989.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화사.
- 나간채. 1991.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김종철 · 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 문우진. 2005. “지역분위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공간모형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제3호, pp. 151-186.
- 문용직. 1991.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제1호, pp. 1-18.
- 민경환. 1991. “사회심리적으로 본 지역감정.” 김종철 · 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pp. 113-134.
- 손호철. 1997.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서울: 사회평론.
- 안신호. 1989.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인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화사.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2호, pp. 155-178.
- 이남영. 1998.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오름.
-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 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pp. 135-155.
- 최장집. 1991. “지역감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원.”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 _____. 1993. 『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 한길사.
- 최준영. 2007a. “공화당의 남벌(南伐)전략과 남부의 정치적 변화.” 『新亞細亞』 제14권 제3호, pp. 154-177.
- _____. 2007b.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pp. 375-394.
- 황태연. 1997. 『지역패권의 나라: 5대 소외지역민과 영남서민의 연대를 위하여』. 서울: 무당미디어.
- Firebaugh, Glenn, and Kenneth Davis. 1988. “Trends in Antiblack Prejudice, 1972-1984: Region and Cohort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251-272.
- Gilens, Martin, Paul Sniderman, and James Kuklinski. 1998. “Affirmative Action and the Politics of Realig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159-183.
- Key, V. O. Jr. 1949. *Southern Politics in State and Nation*.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Kuklinski, James, Paul Sniderman, Kathleen Knight, Thomas Piazza, Philip Tetlock, Gordon Lawrence, and Barbara Mellers. 1997a. “Racial Prejudice and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402-419.
- Kuklinski, James, Michael Cobb, and Martin Gilens. 1997b. “Racial Attitudes and “the New South”.” *The Journal of Politics* 59: 323-349.
- Riker, William. 1982. *Liberalism Against Populism: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heory of Democracy and the Theory of Social Choice*.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Inc.
- Schattschneider, E. 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Fort Worth: HBJ College Publishers.
- Tuch, Steven. 1987. “Urbanism, Region, and Tolerance Revisited: The Case of Racial

Prejudi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504-510.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1981. "The Framing of Decision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ABSTRACT]

Does Regional Prejudice Exist?: A Study on Regional Prejudice through an Unobtrusive Measurement

Choi, Jun-Young | Inha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s. First, it is to develop an unobtrusive measurement on regional prejudice preventing the testing effect and thereby creating more valid results on the issue. Second, it is to find out whether regional prejudice does still exist among the people from the two rival regions, Honam and Youngnam. In order to develop an unobtrusive measurement on regional prejudice, this study heavily relies on Kuklinski and his colleagues' study on racial prejudi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regional prejudice does not exist anymor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value of the theories about regionalism built on the assumption of the existence of regional prejudice. Second, it is very urgent to delve into the changes in the inherent nature of regionalism in the Korean elections.

Key Words | regional prejudice, regionalism, unobtrusive measurement, rational choice theory